

지역 소식통

정읍시, 22일까지 축산 농장 방역시설 일제 점검

정읍시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

시는 소, 염소 등을 사육하는 전업농 규모(소 50두, 염소 300두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농장 내 방역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에도 구제역, 렙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방역활동의 기본인 농장 방역시설을 일제히 점검해 강화된 방역관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업 규모의 농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10가지 방역시설 설치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방역시설이 미흡한 농장은 신속하게 방역시설 보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후 확인을 통해 소독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운영·유지되는 지 확인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2025 예산편성 주민제안사업 공모

고창군이 내년(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오는 7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창군민 또는 군 소재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하며, 사업 제안은 고창군청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홈페이지(소통·참여)주민참여예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는 청소년·청년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집중공모기간을 당초 5월 31일에서 7월 31일로 늘렸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활발한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다. 고창군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고창군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을 통해 재정집행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다. /고창=김영식 기자

“노을대교 총사업비 증액 반영”

심덕섭 고창군수, 최상목 경제부총리 만나 지역염원 ‘노을대교 조기착공’ 지원 요청

심덕섭 고창군수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면담하고 지역염원인 ‘노을대교 조기착공’을 위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11일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를 찾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했다. 심 군수는 “노을대교는 지역의 30년 숙원사업이고, 국토균형발전의 핵심축이다”며 “이미 국가 최상위 SOC계획

에 반영된 만큼, 총사업비 증액을 통해 노을대교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만남은 전북특별자치도 핵심사업인 ‘노을대교와 서해안철도 사업’에 대한 김관영 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을대교 건설사업’은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당

초 턱기(설계·시공 일괄진행) 방식으로 발주했지만 낮은 공사금액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우려와 자재비·인건비 인상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유찰돼 현재는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서 진행 중이다.

시행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해 4월부터 기본설계를 추진했다. 그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증액을 요청했고, 현재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날 심덕섭 군수는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서해측 개발을 위해 ‘서해안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다. 이를 발판삼아 지난해 5월 전북도에서 시행한 ‘전북권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제5차(2026~2035)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노을대교와 서해안철도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서해안의 우수한 해양관광자원의 접근성 개선으로 군민의 소득을 높이는 든든한 관광 실현하고, 미래 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11일 심덕섭 고창군수가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면담하고 지역염원인 ‘노을대교 조기 착공’을 위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읍시는 지난 8일 철 구조물 가공 기업인 ㈜호연롤포밍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정읍시-호연롤포밍, 투자협약 체결

철도산업농공단지 총 229억 규모 투자, 25명 신규 일자리 창출

정읍시가 철도산업농공단지에서 또 하나의 기업을 유치했다.

시는 지난 8일 철 구조물 가공 기업인 ㈜호연롤포밍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시장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이학수 시장과, ㈜호연롤포밍 최주연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호연롤포밍은 철도산업농공단지 내 1만 7071㎡(5164평) 부지에 229억을 투자하고 25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올해 생산시설을 착공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방침이다.

㈜호연롤포밍은 이번 투자로 이미 수주한 자동차와 철도차량 부품, 건설

업체 등에 사용될 각종 구조물을 위한 내 납품한다. 특히 향후 기술개발에 주력해 제품을 다양화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와 함께 한 시기에 또 하나의 기업을 유치해 준 최주연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호연롤포밍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주연 대표는 “정읍시의 적극적인 협조와 환영에 감사드린다.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조স্য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7개 사업 추진

축산농가 경영안정 54억원 지원

부안군은 양질의 국내산 조স্য료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축산 경영을 위해 조স্য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7개 사업 54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조স্য료 생산기반을 지원해 사료 가격 인상 등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난 해소와 양질의 국내산 조স্য료

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캐나다를 시작으로 오는 2028년까지 조স্য료 수입 관세가 순차적으로 철폐되는 중요한 시기로 국내산 조স্য료의 품질을 향상시켜 이윤율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군은 조স্য료 사일리지 제조비 31억원, 조স্য료 등급제 사일리지 제조비 9억원, 조স্য료 종자 구입비 2억 5000만원, 조স্য료 수확장비 지원 3억 6000만원, 그 외 조স্য료 퇴액비 지원 등 8억 9000여만원을 예산을 투입해 국내산 조স্য료 생산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양질의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양질의 조স্য료를 확대·생산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축산농가에 공급해야 한다”며 “고품질 국내산 조স্য료 생산을 위해 관련 사업을 강화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업무 경력지인 경우 우대 요건이 주어진다. 원서접수 기간은 11일부터 22일까지며, 구체적인 모집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조স্য료원은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된 표본가구를 방문해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원 모집

정읍시 보건소는 질병관리청, 원광대학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조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과 생활 습관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건사업 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모집인원은 총 6명으로 컴퓨터,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정읍 거주자 또는 지역 실정에 밝고

부안군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4년 사업지구는 부안을 동중2지구(870필지·면적 26만 9306㎡), 변산면 공항지구(146필지·면적 7만 7086㎡), 상서면 우덕지구(259필지·면적 9만 4270㎡), 위도면 정금지구(62필지·면적 14만 9851㎡)를 대상으로 총 1337필지, 면적 59만 513㎡이다.

올해 사업지구는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 경계 불일치, 농어촌 취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협회 추진, 공항 어촌신활력 증진 사업 등의 사유로 선정됐으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사전절차로 지난해 실시계획수립에 대한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절차에

부안군,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본격 추진

따라 우편을 발송하고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달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가 LX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4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촉탁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지적재조사 대행자로 민간 촉탁수행자가 선정돼 일부 공정을 대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해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